

부산시민의 발 사람을 잇다, 안전을 잇다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체계 구축 컨설팅



부산은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린다. 인천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촘촘히 연결된 시내버스는 부산에 역동성을 더한다.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안전보건을 최우선의 가치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글 기사윤 사진 강권신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초석이 되다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운송 사업의 발전과 운송 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197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지난 50여 년간 버스 업계 경영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며 부산 시내버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현재 33개의 여객사를 조합원사로 두고 있으며, 각종 제도개선 및 지원책을 통해 조합원사와의 상생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부산 시내에는 총 145개의 노선, 2,511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버스들은 늦은 밤, 이른 새벽에도 시민들의 발이 되어 부산 시내의 불을 밝힌다. 이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빈틈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요소는 다양하다. 운전기사 및 이용자의 부주의, 차량의 작은 결함부터 굵은 날씨까지,

크고 작은 요인들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33개 조합원사 각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조합원사 대부분은 소규모사업장으로 안전보건 부문 전담 인력을 둘 여유가 없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과 그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조합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버스 운행이라든지 차고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건·사고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전문기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내에 안전보건 전담 부서가 없는 것은 조합원사와 마찬가지로 상황.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노사협력팀 심용찬 대리는 “협회의 컨설팅을 통해 조합원사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의 기회가 되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꼼꼼하고 탄탄한 컨설팅,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사 및 영업소,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및 조치사항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각 조합원사마다 부족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해주었는데요. 컨설팅 덕분에 조합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었죠.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용 투자가 당연한 일인데,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이 합당한 근거가 되어주었습니다.” 노사협력팀 김철민 팀장은 조합원사들이 컨설팅 전

무심코 방치했던 유해·위험 요인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한다. 안전 펜스 설치, 위험물질 경고 표시, 버스 전기 충전기에 절연 장치 추가 등의 세심한 부분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설정의 방법과 중요성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 컨설팅이 진행됐다고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버스 운행·정비업무·기타 분야로 세분화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데 집중해주었습니다. 빠른 피드백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이는 각 조합원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이 일조했다는 게 김철민 팀장의 이야기다.

컨설팅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탄탄히 만들어나갈 것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 결과 부산광역시서비스운송 사업조합의 앞으로의 과제는 연초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시, 목표와 방침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험성평가 시 현장 노동자의 청취조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노동자의 참여를 증빙할 수 있도록 각 단계 별 문서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이행 사항을 짚어줬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미비점, 필요사항 및 개선점 등을 전문적이고 빠르게 피드백해 줘 전자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철민 팀장은 협회의 위험성평가 교육도 컨설팅의 훌륭한 부분으로 손꼽는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서의 위험성평가의 역할을 일깨워줘, 안전보건관리 세부 목표 설정과 이행 점검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컨설팅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자 모두와 함께 유해·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가 더욱 바빠지고, 부지런해야 노동자의 안전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탄탄히 다져가겠습니다.”

노사관계 업무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노사협력팀의 어깨는 유독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회의 컨설팅을 통해 그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었다는 부산광역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 노사협력팀, 그들이 그리는 청사진 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잇는 부산 시내버스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 🍀

Mini Interview

노동자의 안전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사협력팀 김철민 팀장

Q. 노사협력팀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영과 노동조합의 활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루는 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제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때로는 노사분쟁에 따른 진정 사건이나 소송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조합원사의 원활한 산업안전보건업무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 부문 다짐을 들려주세요.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 컨설팅이 일회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전 조합원사에 확장돼 실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사를 관리·점검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보건 부문 부족한 점은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